

보 도 참 고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이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3. 2. 20.(월)		
담당 부서	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	책임자	과장	홍승령	(044-202-3560)
		담당자	사무관	백수민	(044-202-3562)

보건복지부 제1차관, 부모의 육아 서포터 ‘시간제보육’ 현장방문(220) - 대전시 어린이집 방문 및 학부모·교직원 간담회 진행 -

□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0일(월) 오후 14시 15분 샘머리어린이집(대전시 서구)을 방문하여 보육 현장을 점검하고, 학부모, 보육 교직원 및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정책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.

□ 이 자리에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, 보육전문가로부터 장애아통합 보육 및 시간제보육*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.

* (시간제보육)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·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

○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독박육아의 부담을 덜고 육체적·정서적으로 회복하였을뿐만 아니라, 육아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아 양육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

- 조부모님이 아이를 주로 맡아주시는데, 시간제보육을 통해 조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.

○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,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자연스럽게 입소하는 매개체가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였다.

<학부모 의견>

- ① 시간제 보육을 통해 양육부담을 덜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음
- ② 조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는 맞벌이도 필요시 1~2시간 이용할 수 있어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어 좋음
- ③ 독박육아로 인해 감정기복이 심했는데 시간제를 이용하면서 틈틈이 운동 및 개인생활을 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행복감을 찾음
- ④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불안감이 있었으나, 시간제보육을 이용해 보니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좋음
- ⑤ 시간제 보육에 대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음

<어린이집 의견>

- ①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만족도와 매우 높아 운영자로서 자긍심이 생김
- ② 시간제보육 이용 학부모의 대부분이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데 수시로 육아 상담 및 발달상황에 대한 면담을 통해 학부모의 행복감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 운영의 자신감이 생김
- ③ 어린이집 입소 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학부모의 어린이집 입소상담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어 좋음
- ④ 시간제보육 업무처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운영 지원을 해줘서 고마움
- ⑤ 시간제보육 모바일 결제 기능 도입 등 시스템 개편('23.1월)에 대한 만족도 높음

□ **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** “현장방문을 통해 변화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**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**할 수 있었다.”라며,

○ 특히, 장애통합·시간제보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**보조·대체교사 등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**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대해,

- 보육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대체교사와 보조·연장교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‘**비담임교사***’ 직위를 신설·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, 추가적인 인력 증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

* (비담임교사) 평상시 보조·연장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, 담임교사 부재시 대체교사의 역할을 수행

- 또한, “태어나는 아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욱 소중해질 이 시기에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”이라며,
- “특히,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어린이집 현장방문 개요
2.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
3. 비담임교사 사업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	책임자	과 장	홍승령 (044-202-3560)
		담당자	사무관	백수민 (044-202-3562)
담당부서 <비담임교사>	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유보영 (044-202-3540)
		담당자	사무관	성지은 (044-202-3552)

붙임 1

어린이집 현장방문 개요

- ☐ (일시/장소) 2023. 2. 20.(월) 14:15 ~ 14:40 / 샘머리어린이집
- ☐ (목적) 보육 정책 수요자(영유아부모) 및 보육계 종사자 간담회로
보육 정책 의견 청취 및 제안사항 수렴
- ☐ (참석자) ^{복지부}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, 유보영 보육정책과장
^{수요자}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부모
^{종사자}원장·보육교사
^{전문가}보육학계 전문가 및 대전시 보육담당 공무원
- ☐ (세부 일정) 라운딩 이후 정책 간담회 진행

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4:15~14:40	25'	어린이집 현장방문(샘머리어린이집)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81
14:15~14:20	5'	도착 및 환담	
14:20~14:25	5'	어린이집 라운딩	
14:25~14:40	15'	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· 모두말씀 → 의견청취(원장·보육교사·학부모)	참석: 영유아 학부모, 어린이집 보육교사, 원장 보육학계·현장전문가
14:40~	5'	마무리 및 이석	

붙임 2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

□ 시간제보육 사업개요

- (목적)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·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
- (사업규모) 20,413백만 원('23년 기준), 1,030개 반까지 확대 제공
- (지원대상)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~36개월 미만 영유아
- (법적근거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
- (제공기관) '22년 2월 기준 독립반 812개 반 운영중
 - * (통합반 시범사업) '22.9월부터 14개 시군구, 130여개 반 운영(~'23.2월)

< 시간제보육 운영기준 >

구 분	독립반(기존모형)	통합반(신규 시범사업 모형)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교사 대 아동비율(0세반 1:3, 1세반 1:5) 준수 
운영시간	○ 월~금 9:00 ~ 18:00, 시간 단위 예약·이용	○ 월~금 9:00 ~ 16:00, 오전반(9~12) / 오후반(13~16) / 종일반(10~15)으로 예약·이용
지원시간	○ 월 80시간(월 80시간 초과 시 부모부담 100%로 이용 가능)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간제보육반 교사 인건비(평균 268만 원) 및 운영비(반당 50만 원) * 필요시 리모델링비 지원 	○ 운영비(반당 60만 원) 및 교사수당(18만 원)
보육료	○ 시간당 4천 원(부모부담 1천 원)	○ 시간당 5천 원(부모부담 2천 원*)

*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부담 중 1천원 국비 지원하여 현행 동일하게 1천원으로 운영

□ 시간제보육 시스템 개편사항 (' 23.1월)

- (추진배경) 시간제보육 신규모형(통합형) 도입·확산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색 - 예약 - 출결 - 결제 기능 시스템 개편 추진

*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위치 기반 검색 기능 부재 등 시간제보육 웹 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사용성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('22년 상임위 지적)

- (주요 개선내용) ▲위치 기반 근거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및 신청 기능 강화, ▲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, ▲수기 입력 → QR코드 활용 출결 및 보육료 결제 기능 도입 등

- (위치 기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기능)



- (모바일 결제 기능)



붙임 3

비담임교사 사업 개요

- (추진배경) 대체교사와 보조·연장교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“비담임교사” 직위를 신설·운영하여 안정적 보육활동 도모

【 비담임교사 지원체계 】



- (업무내용) 담임교사 부재시 대체교사의 역할 수행하며, 평상시 보조·연장교사 업무를 수행
- (자격조건) 보육교사
- (지원대상) 지자체에서 정원충족률, 농어촌지역, 취약보육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

【 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】

- 비담임교사 지원 기관은 보조교사 1명(4시간)과 연장교사 1명(4시간) 미지원 원칙
- 정원충족률(50%이상 필수) 높고,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어린이집
- 농어촌 지역 등 대체교사 파견 또는 채용이 어려운 경우
-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그 밖의 연장형·다문화아동 보육) 어린이집
- 선임교사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

※ 제한대상 어린이집
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(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·명령, 제44조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외)을 받았거나,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
- 최근 2년 이내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환수조치(예정) 된 어린이집

- (지원단가) 1인 8시간, 월 2,216천 원(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%지원)
- ※ 비담임교사가 원감 역할(1급자격, 3년이상 경력)까지 수행하는 경우, 월 2,269천 원(국공립 7호봉) 지급 가능 (인건비 차액은 어린이집 자부담)